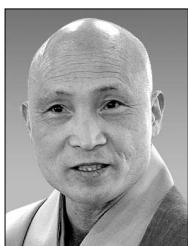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을유년 새해, 많은 불교단체들은 벌써부터 저마다 아무진 꿈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좌절도 겪었지만 그래도 이룩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새 '희망' 앞에 선 각 단체장들의 신년 설계를 들어본다.

“희망 일구는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불교행사를 시민축제로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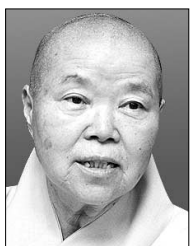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법회가 스님들과 불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APEC이 열려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을 것이므로 한국 사찰의 수행가풍과 불자들의 맑은 신심을 접할 수 있도록 각 사찰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산 어디를 가든 한국문화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부산불교연합회 조직 체계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회원 사찰 및 수행단체의 활동 현황 파악 및 자료화를 토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정보교환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여나갈 것이다.

‘수행과 교육’ 프로그램 확충

명성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지난해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추진사업의 핵심을 ‘수행과 교육’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근·현대 한국비구니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오는 9월경 개최할 계획이다. 각 문중별 비구니들의 수행상과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숙원이던 비구니총집 건립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운문사에서 강원·선원을 비롯한 중진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국비구니회 차원의 대규모 ‘수행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수행교육을 통해 참가자들 모두가 비구니 지도자로서의 위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서읽기 문화에 불 지필 것

원택 스님 불교출판문화협회장



불교 출판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불교 출판사 18곳이 모여 결성한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올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서읽기 문화’에 불을 지펴갈 것이다. 우선 협회 산하 사찰도서관 건립위원회에서는 교구본사뿐 아니라 도심 포교당에서도 대중 불자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찰 도서관’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사찰 도서관은 불자들이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 불교계 언론사들과 함께 ‘불서읽기 캠페인’과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불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다. 언발에는 ‘불교출판문화대상’을 제정해 한해 출간된 불서 중 우수도서를 선정, 시상할 계획도 있다.

건축불사 사전심의제 추진

수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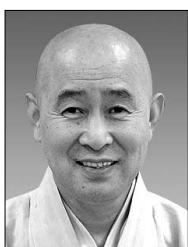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발만능주의 세상이다. 빠르고, 많이 소유하고 써버리는 것을 으뜸의 가치로 여긴다. 환경과 생명을 외면한 계획은 허구일진대, 노무현 정부는 개발만능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 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서는 아득뿐이다.

먼저 우리 불교의 대량화, 불량화, 불사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갈 것이다. 건축불사에 대해 사전에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제도를 만들는데 힘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인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을 중요한 이슈로 삼을 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을 환경살림의 지침으로 재구성하는 일도 올해의 과제이다.

구연동화 전문 인력 확충

정여 스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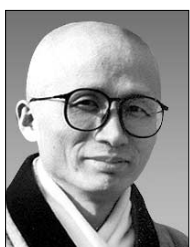


불교적 색채를 강요하지 않는 보편화된 포교방안 모색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구연동화 대회를 통해 불교계 구연동화 인력을 확충하고 소재 발굴에도 힘을 기울인다. 초등학교에서도 구연동화가 보급되고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현실에 걸맞게 불교 설화 등을 구연동화에 접목시키면 감동과 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플래시 애니메이션, 불교문화유적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 직접 법회 노하우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법당’도 보완 강화해서 법회 활성화로 이어갈 것이다. 지역 현실과 특색에 맞는 연수회 개최 방안도 구상 중이다.

치료비 지원사업 다각화

현장 스님 생명나눔선천광주전남지역본부장



지난해 소아암 및 치매돌봄노인 치료지원금으로 8천200만원과 헌혈증서 4000매를 화순 전남대에 전달했다. 금년에는 치료비 지원사업을 ‘다담돌봄동(가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담돌봄동은 매월 병원에 서 환우를 소개받아 각종 단체 및 언론사와 연계해 다양한 후원캠페인을 한 달간 전개하고, 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켜 정기교육을 통해 양질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봉사 시스템을 체계화 시킬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다구멘타리를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며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독거노인 도시락사업과 밀반찬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30주년을 재도약 원년으로

홍승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2005년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더불어 대원장경호 거사의 입적 30주기 행사를 여법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불자들의 불교공부를 돕기 위한 불교디지털사전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대원회·대원정사와 공동으로 대원 거사 평전 발간, 국제불교학술세미나 및 대중불교결과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국제포교와 불교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출판·문화강좌·학술진흥, 수련 교육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불교포교 불사 역시 보다 특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05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명실공히 한국 재가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구심점이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다.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강화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



불교여성개발원은 2003년 처음 실시한 ‘여성 불자 108인 선정’을 통해 여성 불자를 발굴하고, 작년 세계 여성 불자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한국 여성 불자들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조를 했다. 올해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여성 지도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제2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 등의 활동으로 불교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불교 여성화 논문을 공모하고 정기 세미나를 열어 여성 불자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도 준비 중이다. 또한 서울 구치소의 여성 재소자 교화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실과 밀착된 연구 매진

이평래 한국불교학회장



오늘날 불교학자들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내는 것이다. 정보화 등의 변화 속에서 현대문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인식해서 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밀착된 연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분야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상(승가) 내 교육 문제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 하나 금년도 우리 학회가 주력할 사업은 지난해 큰 이슈가 된 바 있는 불교영어표준화사업이다. 발주자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는 올해 10월 마무리된다. 현재 학회에서 마련한 표준화안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족공동체 참여 이끌터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05년도를 기점으로 ‘가족 공동체의 참여와 변화’를 2010년까지의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가연대는 회원운동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 교단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중무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현장과의 긴밀한 유대 아래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설기관인 (사)불교아카데미에서는 교계 인력 자원의 개발을 위해 뜻있는 사찰과 손잡고 체계적인 인력채용, 수급 및 재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해 갈 것이며, 전체 시민사회 내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의제로 올려놓기 위한 출발의 시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통미술 정체성 재확립

이재순 동국불교미술인회장



1월중으로 불교미술계 원로들에게 ‘전통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현재 중국과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불교미술품의 범람으로 불교미술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때일수록 전통 불교미술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98년에 출간된 바 있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을 1월말까지 수정 보완해 다시 펴낼 계획이다. 이번 책에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불교 미술에 대해 입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이외에도 각 사찰들과 연계한 ‘불교 전통 미술’ 시연과 이론 특강을 겸한 교육 불사를 발의 예정이다. 또 7-8월중에는 중국 불교미술 답사도 계획해 놓고 있다.

남북청년 교류 행사 역점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장



3월 만해백일장을 시작으로 6월에는 불청대회와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청년학생교류행사 등 급진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연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평양과 서울에서 문화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구 지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대구지구와 광주지구를 발족시켜 전국적인 대불청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2005년에는 교육 사업 전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입원 연수를 비롯해 계층별 교육을 강화해 신입생부터 235년차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곁들여주는 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디다.”
“그렇다면 왜 벗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산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4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해광(海光)스님 불교비전의서적 『불기비의』 / 실용역서 『운명비결』 / 처서 최초의 소설식 불교리서 『왕초보 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 「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명비결 전문가 과정 신청 접수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032)665-8472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회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상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식·의식·범음(범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백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이 깊어 전해온 전통의식 시경과 범음·범패·요점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점, 작법, 안치비 등	10명	1년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 (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5년 1월 17일 ~ 2월 23일
▷ 개 강 : 2005년 2월 24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1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